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 조사 -조사 개요-

조사 목적 등

- 체류 외국인이 놓인 상황 및 체류 외국인이 안고 있는 직업생활상, 일상생활상, 사회생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외국인 공생 시책의 기획·입안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
 - 2020년 이후 매년도 실시. 이번으로 다섯 번째.
 - 더욱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항목 결정이나 조사 결과 정리 등에 외국인에 관한 공생 시책에 정통한 전문가의 전문성, 높은 식견, 넓은 시야를 반영하였다.
-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관한 공생 시책을 기획, 입안, 실행함으로써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 및 ‘외국인 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의 내실을 기하고, 정부 전체적으로 외국인과의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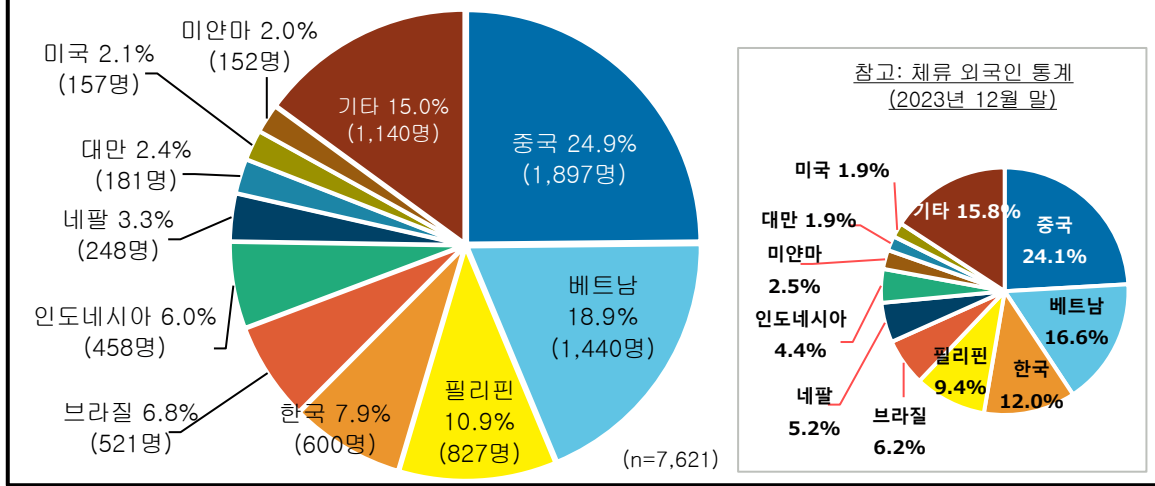
조사 개요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 및 특별영주권자 총 20,000명 ※ 2024년 8월 1일 시점에 가장 최근의 상륙 허가 연월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분으로 한정. ※ 체류 외국인 통계(2023년 12월 말)를 바탕으로 결정한 국적·지역별 및 체류자격별 표본 수에 의거하여 응답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
유효 응답 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 수: 20,000건(그중 미도착분: 408건) ■ 유효 응답 수: 7,621건 / 응답률 38.9%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조사(대상자에게 이차원 바코드가 있는 협력 의뢰장을 발송하여 해당 코드를 스캔해 인터넷 상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하는 형식) ■ 응답 화면은 9개 언어(한자 읽는 법이 표시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에 대응.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 외국인이 직업생활상, 일상생활상, 사회생활상 안고 있는 아래 항목과 관련된 문제 등을 조사. 일본어 학습, 정보 입수·상담 대응, 의료, 재해·비상시의 대응, 육아·교육, 사망 시의 절차, 일, 사회 참여, 인권 문제(차별), 사회보험, 고독 상황 등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9월 17일~같은 해 10월 7일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응답을 그대로 집계·게재한 것으로, 일부 결과는 응답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치는 사사오입하여 표시하였고, %를 합쳐도 100.0%가 안 되는 경우나 그래프 상의 수치 합계와 문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과거의 조사와 비교한 그래프는 선택지의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의미하는 바가 비슷한 것과 비교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 조사에 유사한 선택지가 없는 것은 “—”으로 표시하였으며, 비교 가능한 질문이 없는 연도의 조사와는 비교하지 않았다. ■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KPI와 관련된 것은 이 조사 응답률을 비롯하여 그래프·표 제목의 배경을 빨갈게 하였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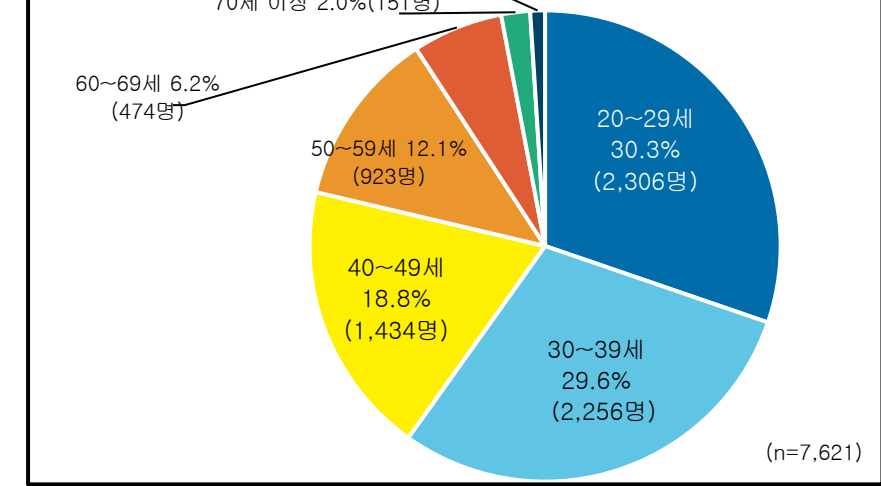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①(응답자 구분)-

- 응답자의 국적·지역은 '중국'(24.9%), '베트남'(18.9%), '필리핀'(10.9%) 순으로 많다.
- 응답자의 체류 자격은 '영주권자'(27.4%),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13.3%), '기능실습'(12.7%) 순으로 많다.
- 응답자의 연령은 '20~29세'(30.3%), '30~39세'(29.6%), '40~49세'(18.8%) 순으로 많다.
- 일본에서의 통산 거주 연수는 '3년 이상 10년 미만'(35.4%), '1년 이상 3년 미만'(24.4%), '10년 이상 20년 미만'(19.7%)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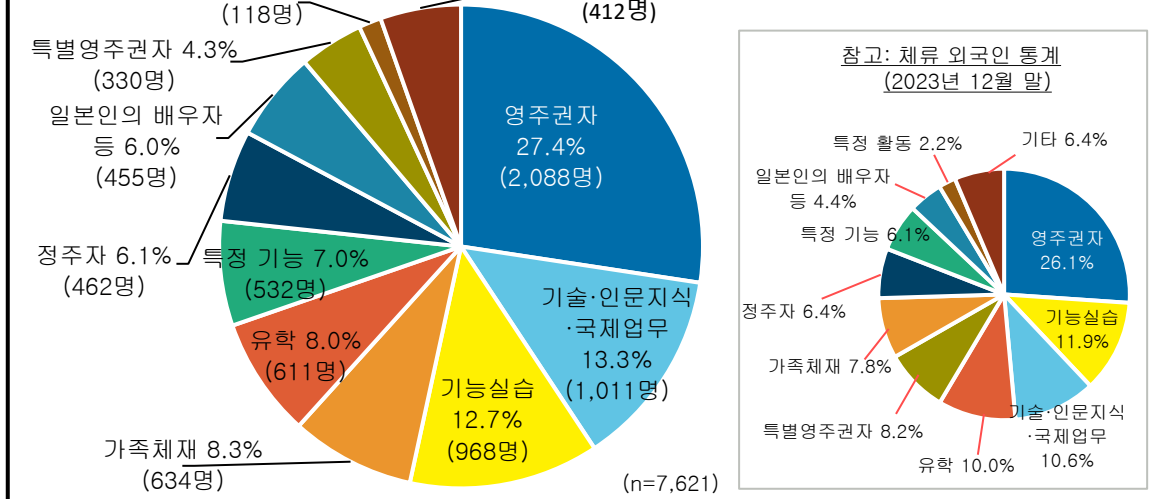
국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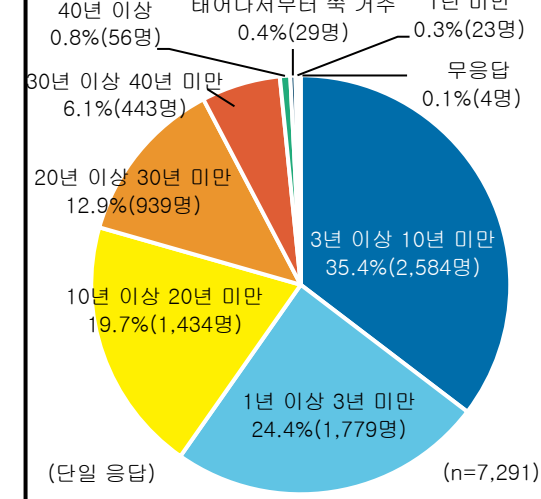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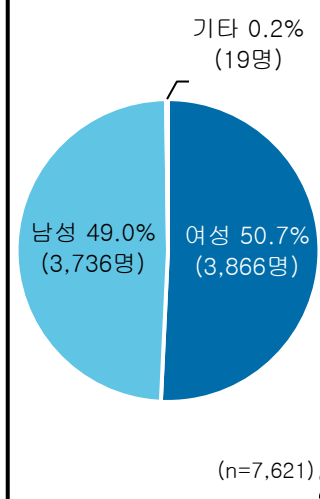
체류자격



일본에서의 통산 거주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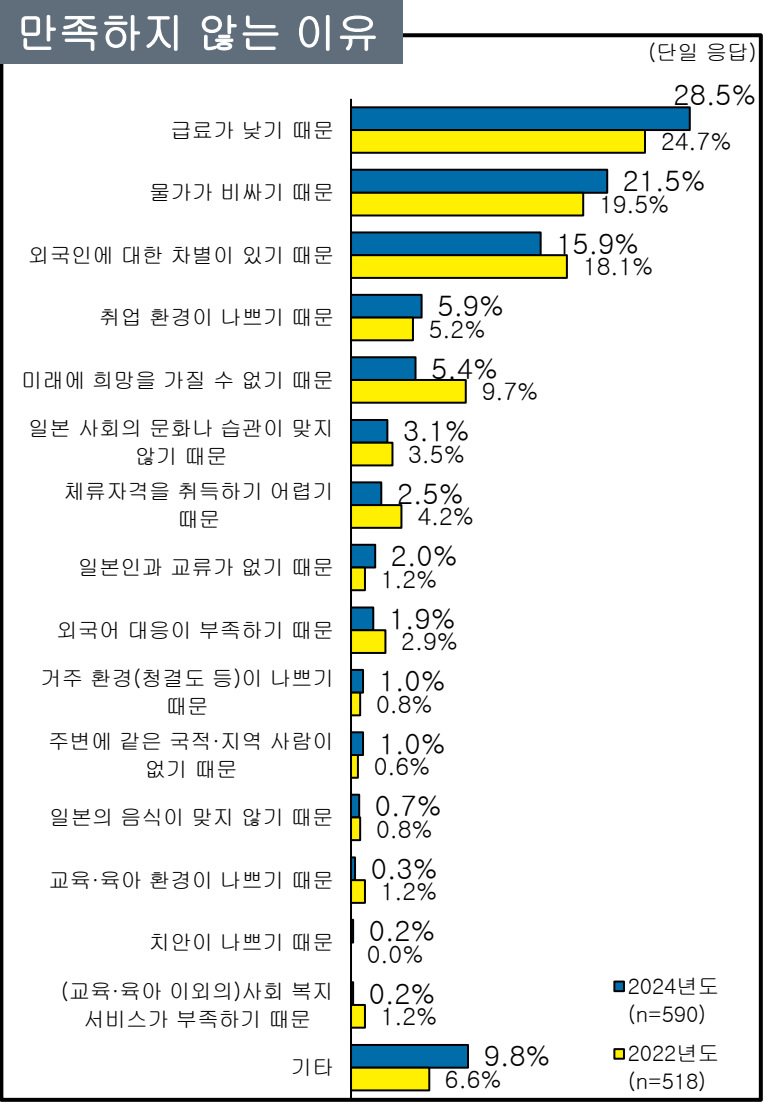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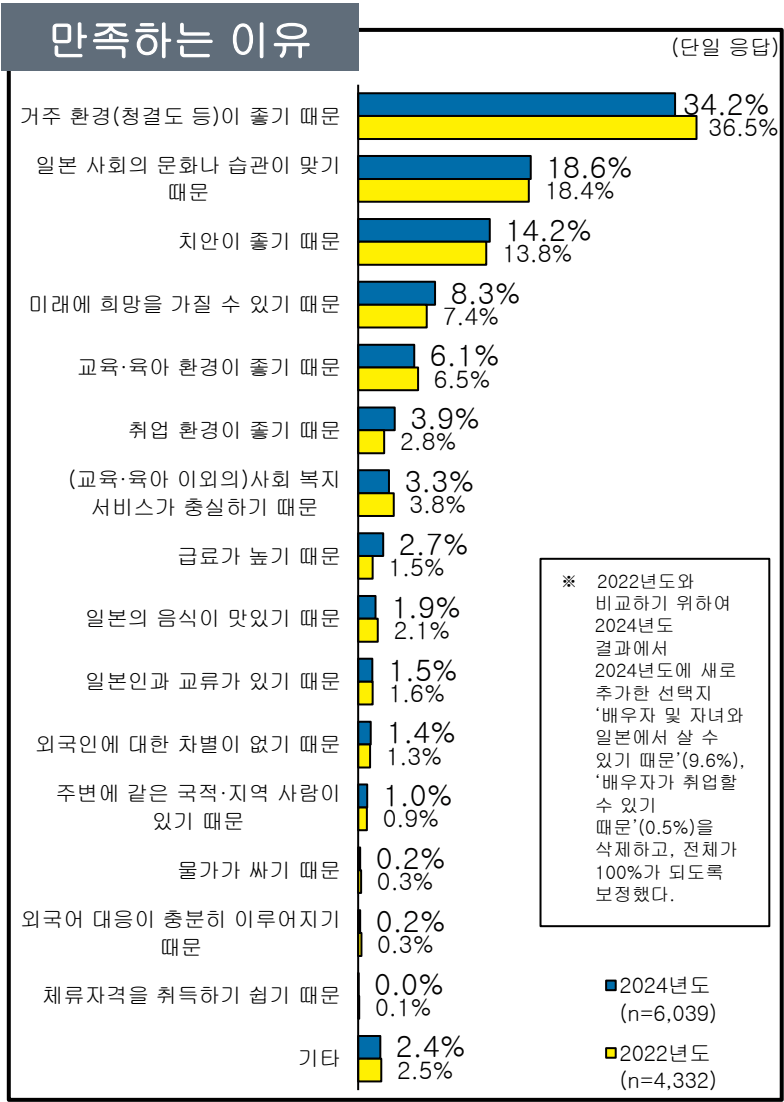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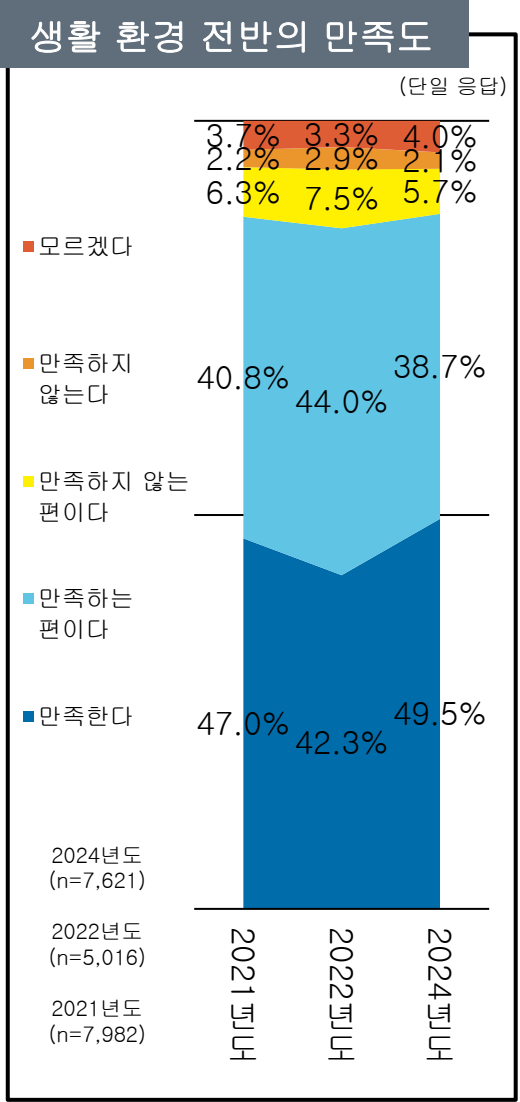


성별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②(생활 환경 전반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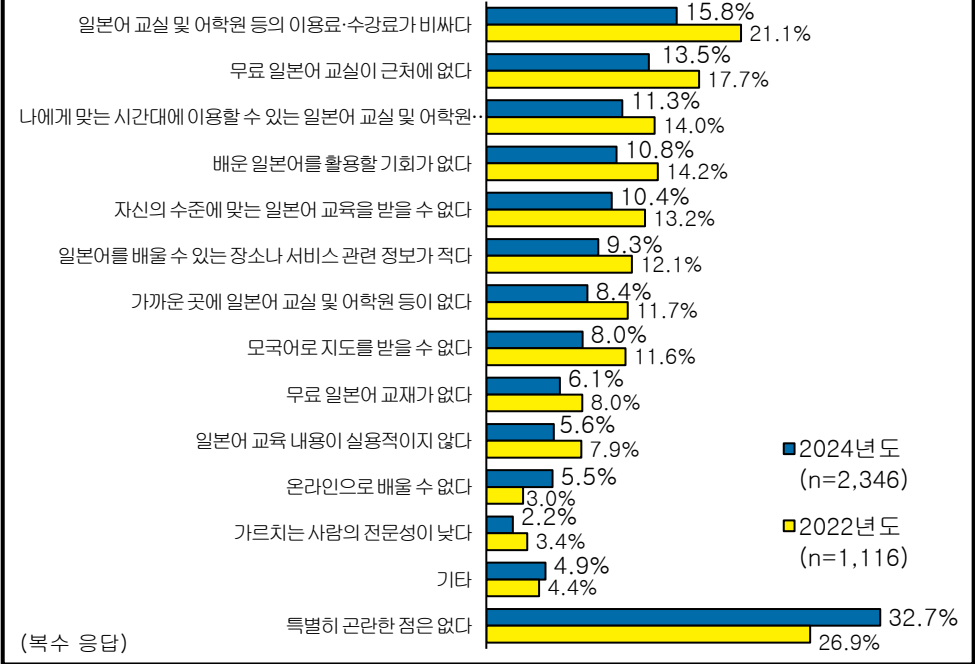
- 일본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만족한다' + '만족하는 편이다')은 88.2%(2022년도와 비교하면 1.9포인트 증가).
- 만족하는 이유는 2022년도와 비교해 상위 세 항목은 변함없이 '거주 환경(청결도 등)이 좋기 때문'(34.2%), '일본 사회의 문화나 습관이 맞기 때문'(18.6%), '치안이 좋기 때문'(14.2%)이 많다.
-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2022년도와 비교해 상위 세 항목은 변함없이 '급료가 낮기 때문'(28.5%), '물가가 비싸기 때문'(21.5%),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15.9%)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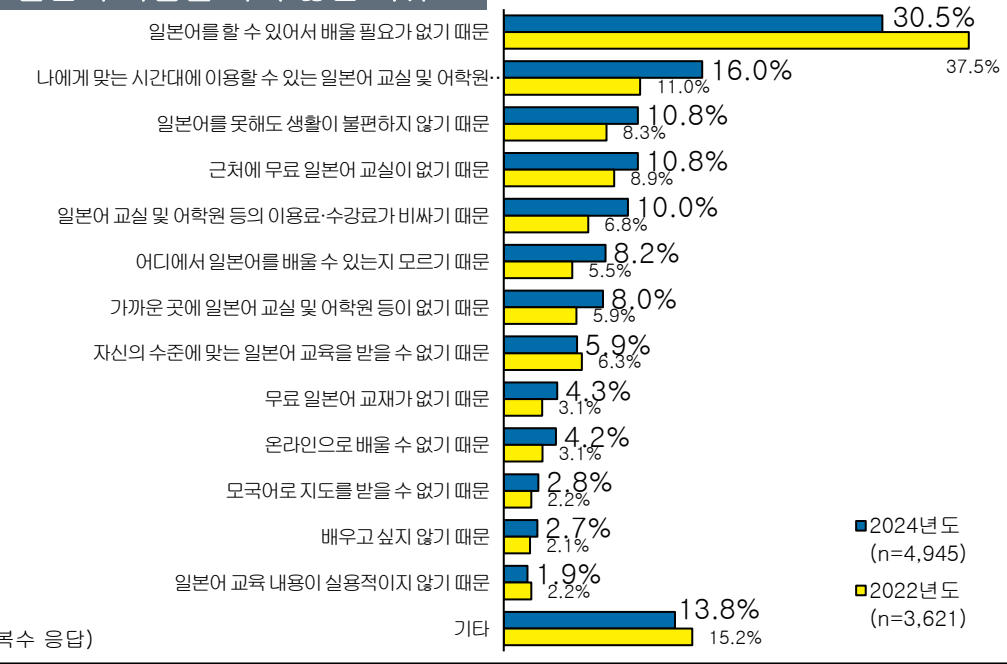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③(일본어 학습)-

- 일본어 학습에 관한 곤란한 점은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의 이용료·수강료가 비싸다’(15.8%)가 가장 많다. 이어서 ‘무료 일본어 교실이 근처에 없다’(13.5%),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다’(11.3%)가 많다.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다’는 2022년도보다 5.8포인트 증가.
- 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는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30.5%)이 가장 많다. 이어서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기 때문’(16.0%)이 많다.
- 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자체 규모별로 보면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은 정령지정도시·특별구가 가장 많고, 지자체 규모가 작으면 비율이 낮아진다. 한편,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기 때문’, ‘가까운 곳에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기 때문’은 정령지정도시·특별구가 가장 적고, 지자체 규모가 작으면 비율이 높아진다.

일본어 학습 관련 곤란한 점



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



일본어 능력(읽기) (지자체 규모별)

구분	일본어 능력(읽기) (지자체 규모별)			
	어떤 내용의 문장이든 쉽게 읽을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로 쓰인 이메일 등을 읽을 수 있다	일상적인 내용의 간단하고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전혀 모르겠다
정령지정도시·특별구	19.5%	23.5%	21.5%	7.7%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	12.6%	20.6%	30.8%	9.8%
인구 20만명 미만의 시	9.0%	18.1%	35.0%	13.1%
정촌	6.2%	18.2%	38.5%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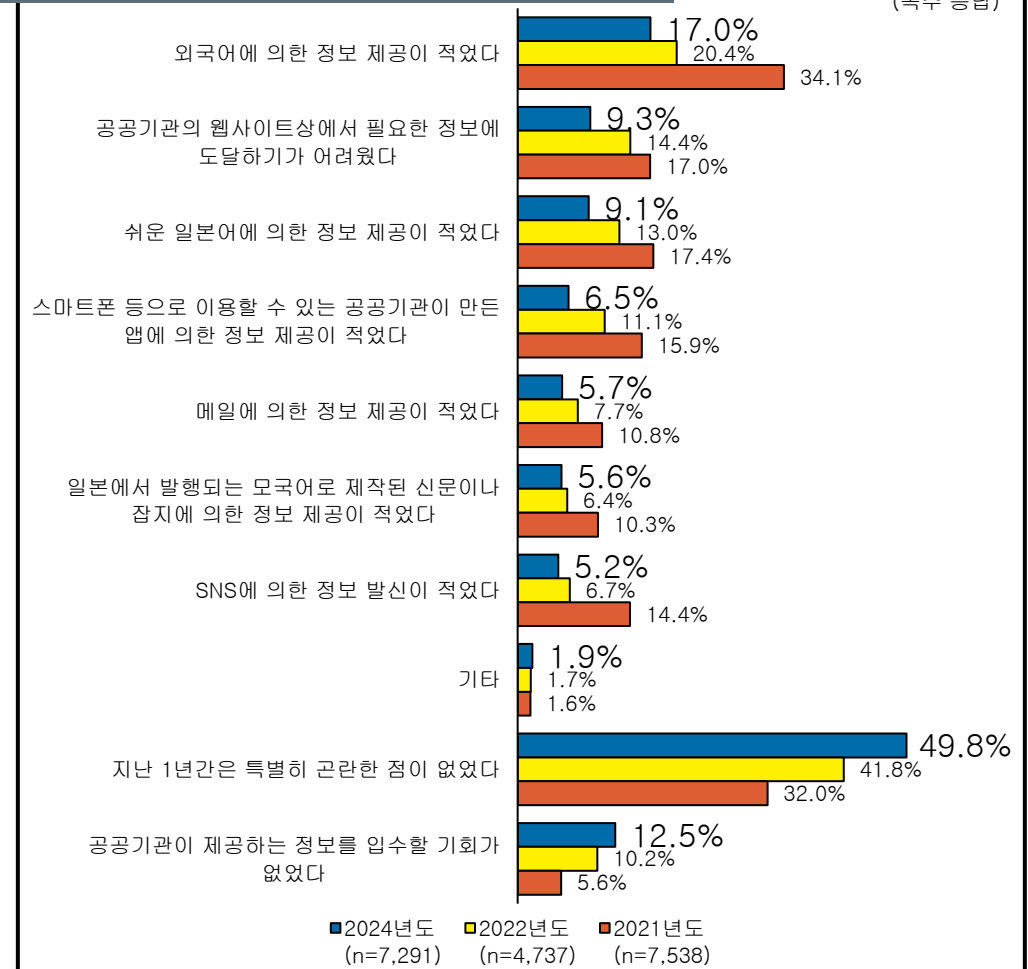
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지자체 규모별)

구분	일본어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지자체 규모별)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기 때문	가까운 곳에 일본어 교실 및 어학원 등이 없기 때문
정령지정도시·특별구	41.0%	14.2%	5.1%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	28.6%	15.3%	7.8%
인구 20만명 미만의 시	21.9%	18.7%	10.7%
정촌	17.4%	19.1%	14.0%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④(정보 입수 및 상담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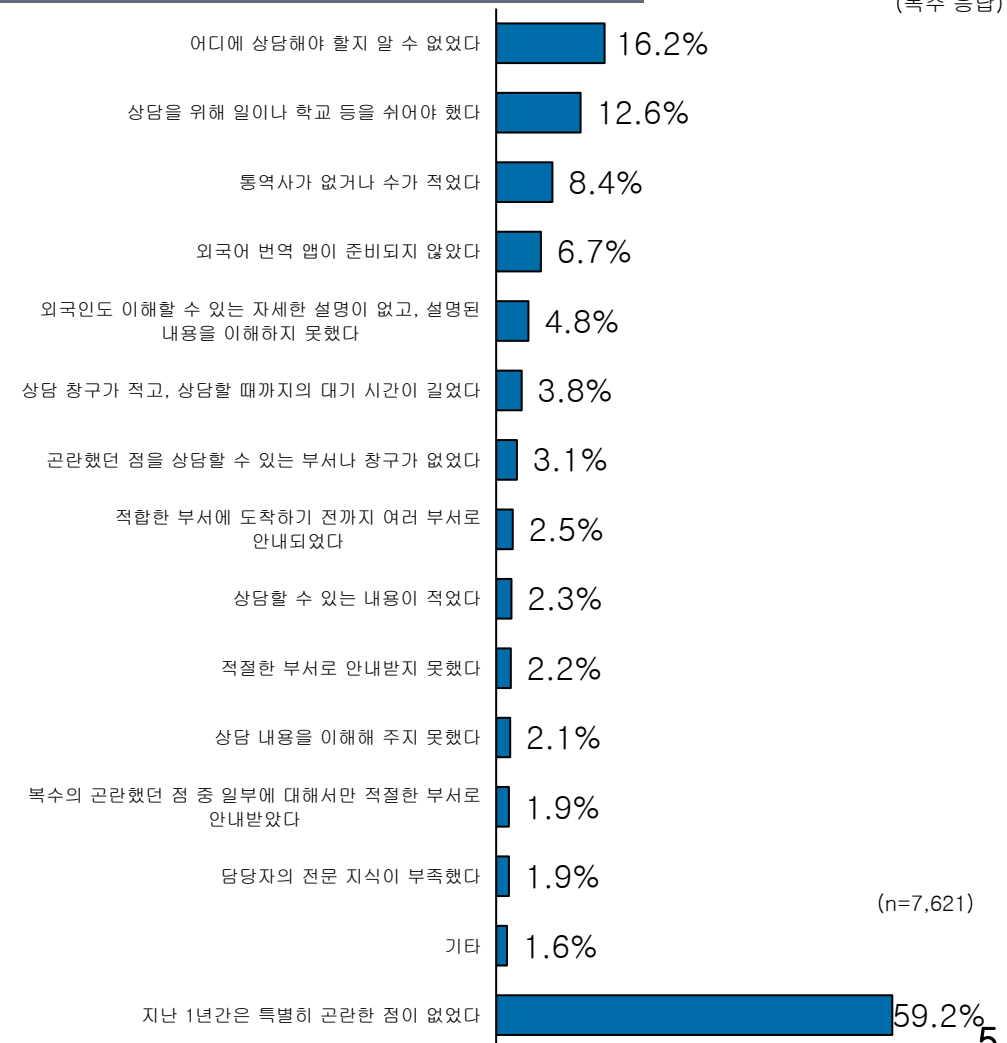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입수할 때 곤란했던 점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에서는 2022년도와 비교해 상위 세 항목은 변함 없이 ‘외국어에 의한 정보 제공이 적었다’(17.0%),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상에서 필요한 정보에 도달하기가 어려웠다’(9.3%), ‘쉬운 일본어에 의한 정보 제공이 적었다’(9.1%)가 많다. ‘기타’를 제외한 곤란한 점은 일관되게 그 비율이 감소하여 ‘지난 1년간은 특별히 곤란한 점이 없었다’는 2022년도보다 8.0포인트 늘었다.
- 공공기관에 상담하러 할 때 곤란했던 점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에서는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16.2%), ‘상담을 위해 일이나 학교 등을 쉬어야 했다’(12.6%), ‘통역사가 없거나 수가 적었다’(8.4%) 순으로 많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입수할 때 곤란했던 점



※ 2024년도 조사 및 2022년도 조사는 지난 1년간의 곤란했던 점이 조사 대상. 2021년도 조사에서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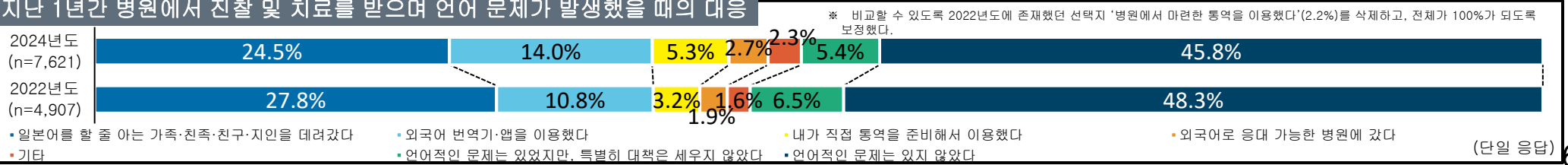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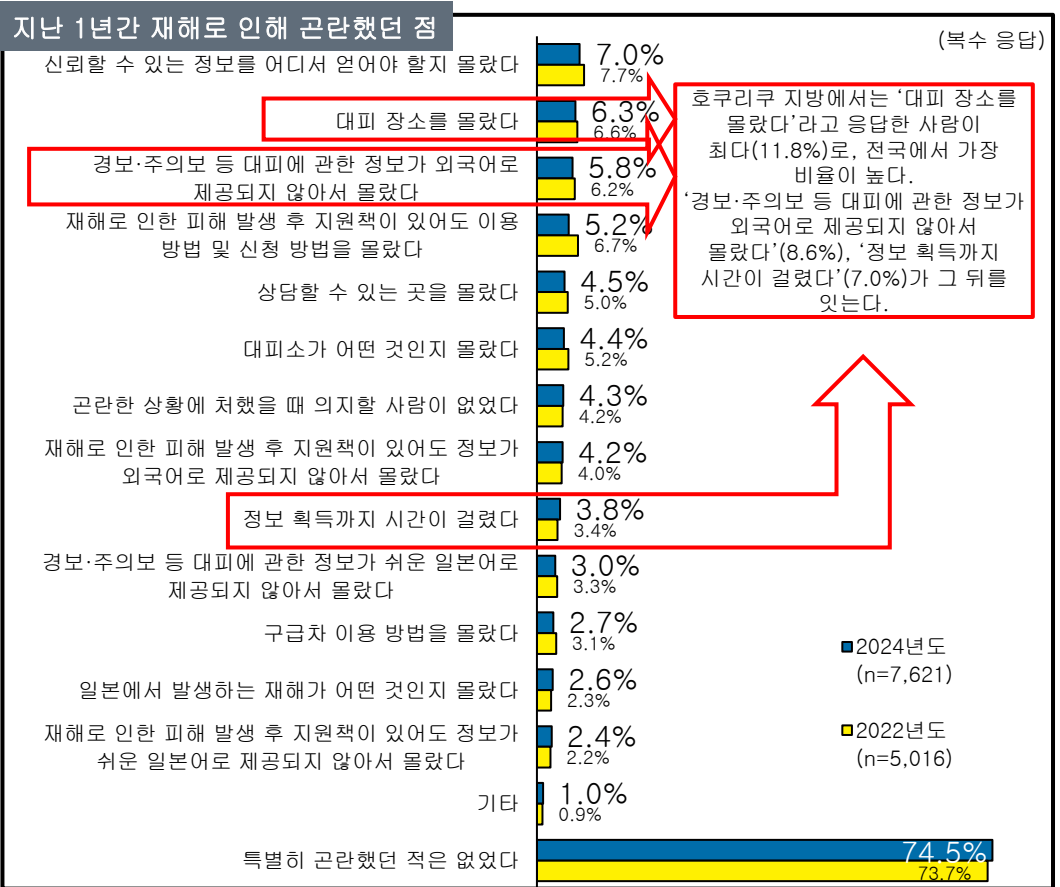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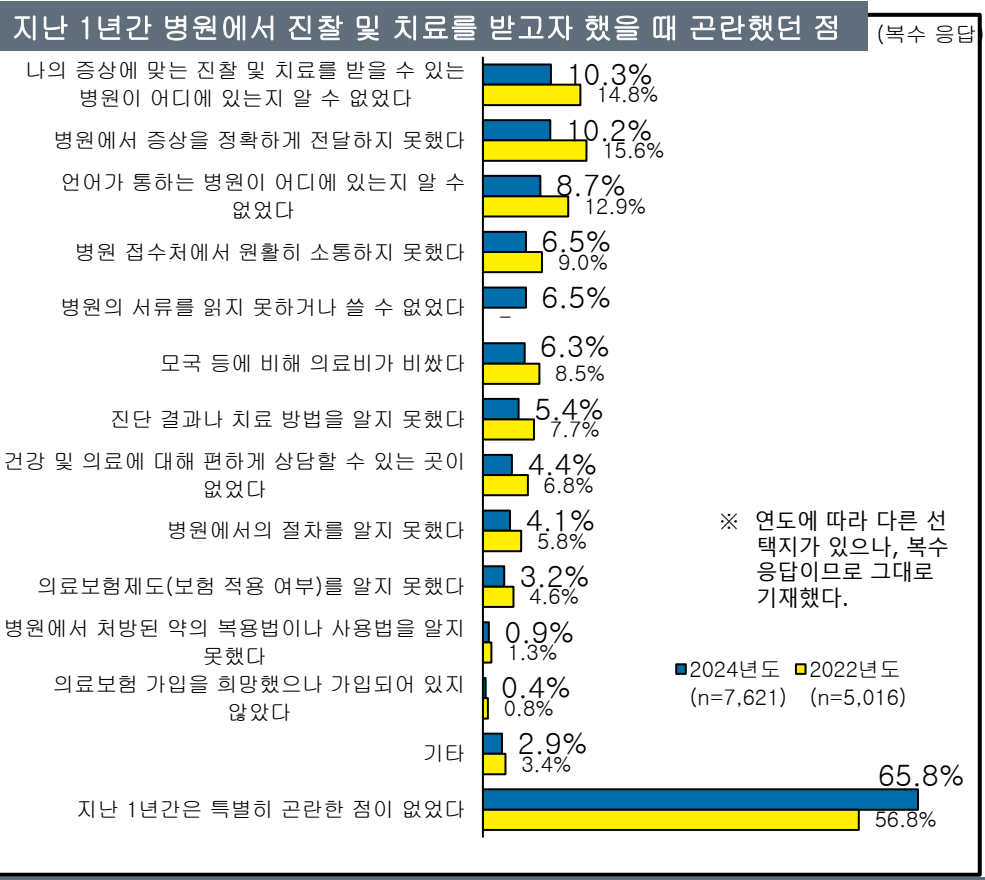
공공기관에 상담하고자 할 때 곤란했던 점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⑤(의료, 재해, 비상시의 대응)-

■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고자 했을 때 곤란했던 점은 2022년도에 두 번째로 많았던 '나의 증상에 맞는 진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10.3%)가 가장 많다. 2022년도에 가장 많았던 '병원에서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10.2%)는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 1년간은 특별히 곤란한 점이 없었다'는 2022년도보다 9.0포인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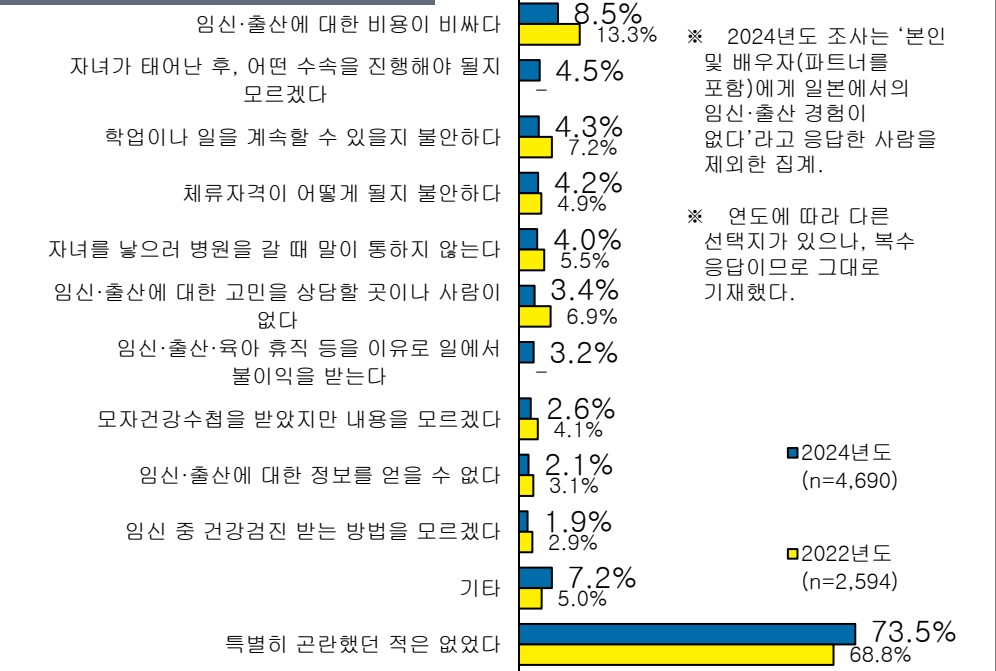
■ 재해로 인해 곤란했던 점은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몰랐다'(7.0%)가 가장 많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대피 장소를 몰랐다'(11.8%)가 최다가 되는 등 다른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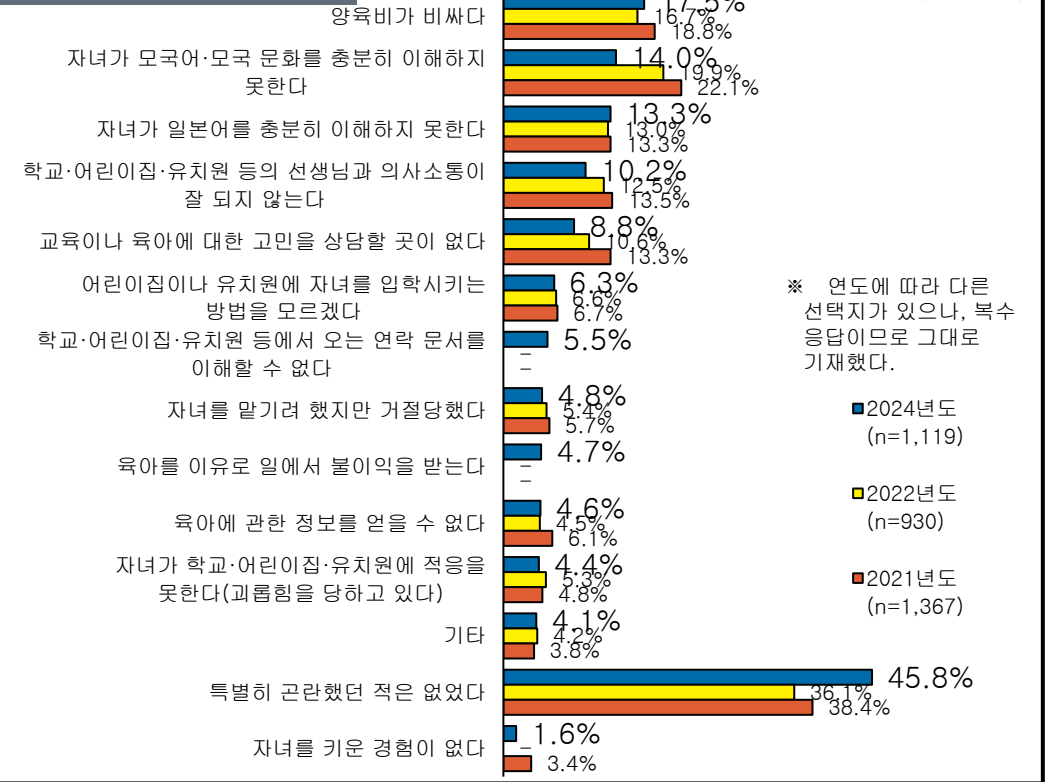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⑥(육아·교육)-

- 임신 출산 관련 곤란을 겪은 점으로는, 곤란을 겪은 응답자 중에서는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8.5%)가 가장 많다. 이번 연도 조사에 새로 추가한 선택지 ‘자녀가 태어난 후, 어떤 수속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4.5%)가 그 뒤를 잇는다.
- 6세부터 15세까지의 자녀 취학 상황을 보면 취학하지 않은 비율은 0.9%로 2022년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 9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 상황(6세~15세)을 보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다녔다’(87.9%)가 가장 많다.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6.0%), ‘가사, 가족 돌봄’(2.1%), ‘기타’(1.7%)가 그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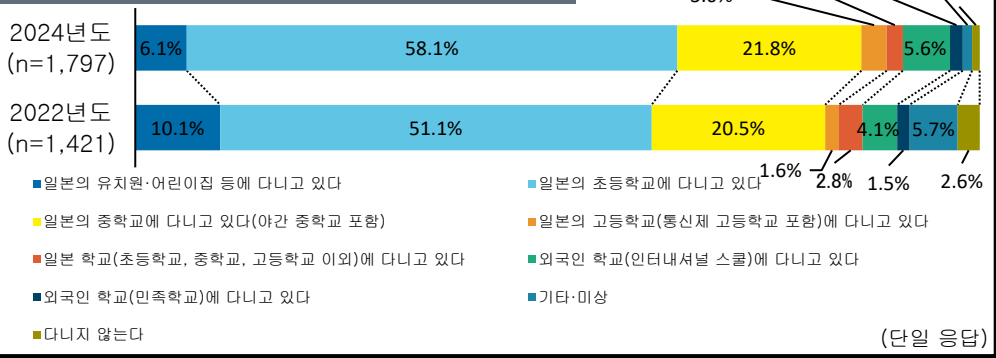
임신·출산 관련 곤란을 겪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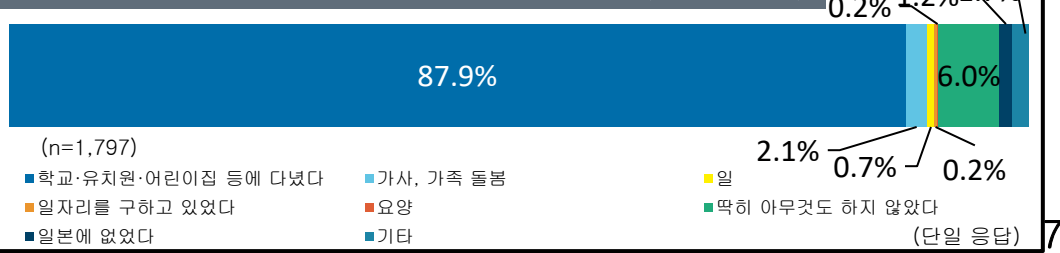
육아 관련 곤란을 겪은 점



자녀 교육·보육 상황(6세~1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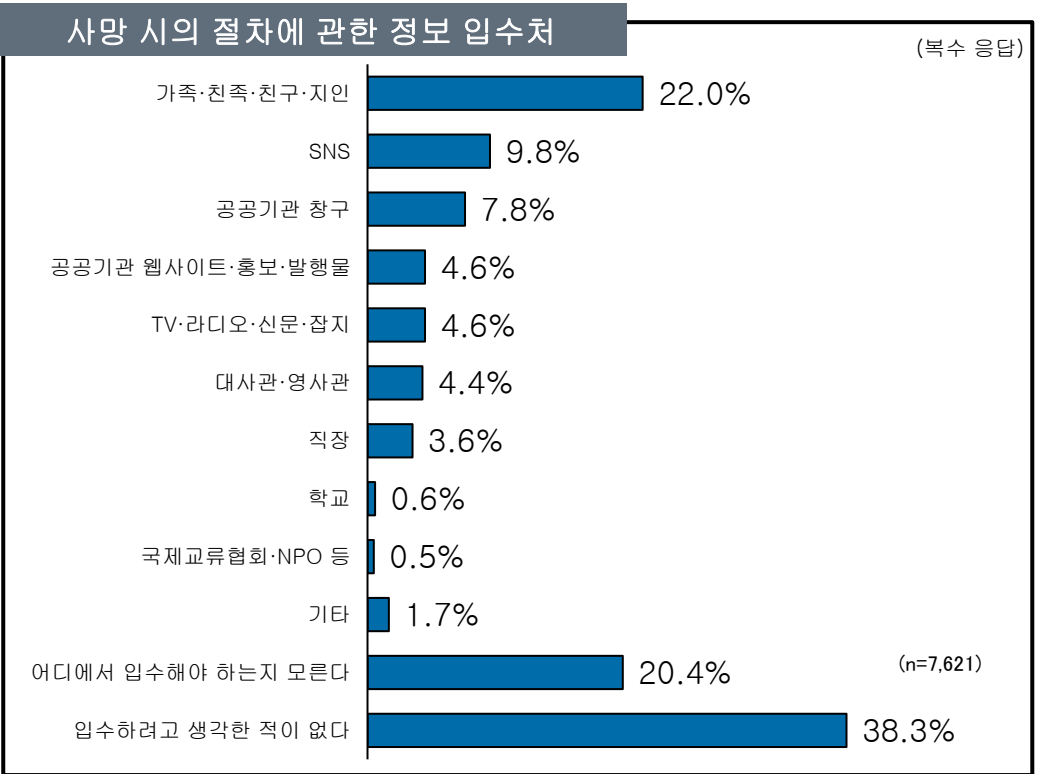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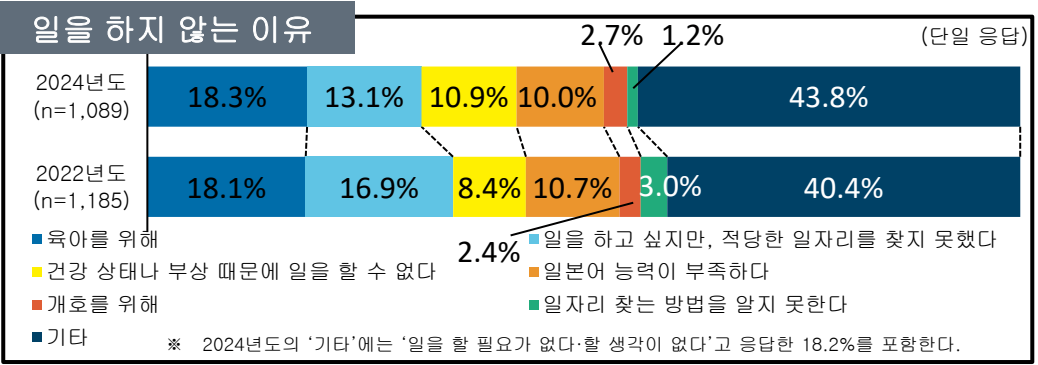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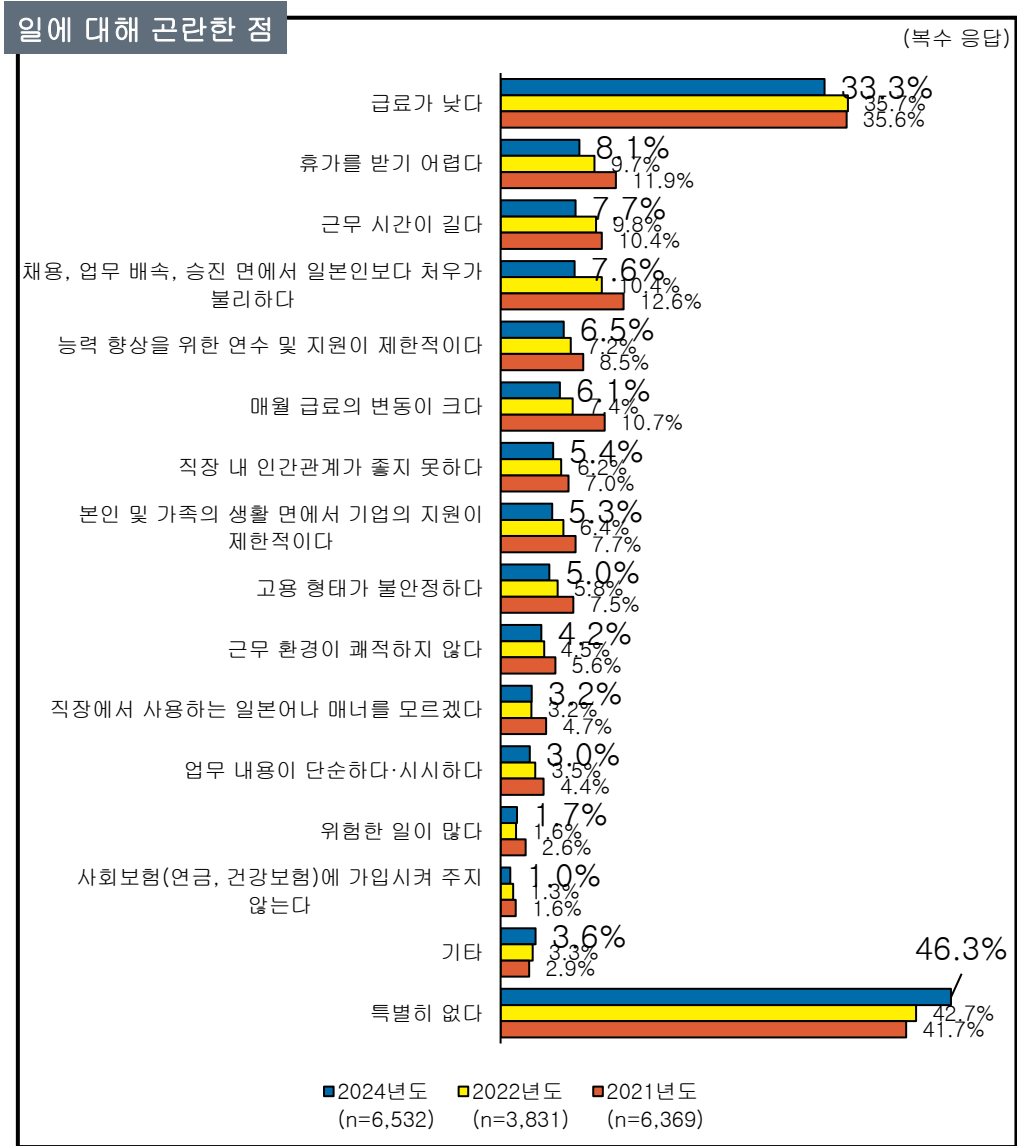
9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 상황(6세~15세)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⑦(취업·사망 시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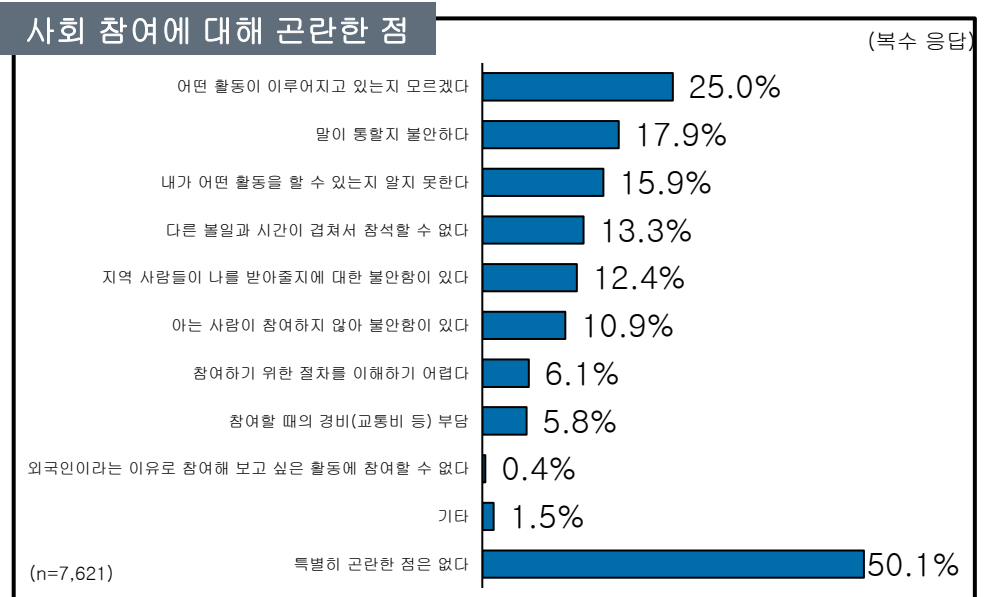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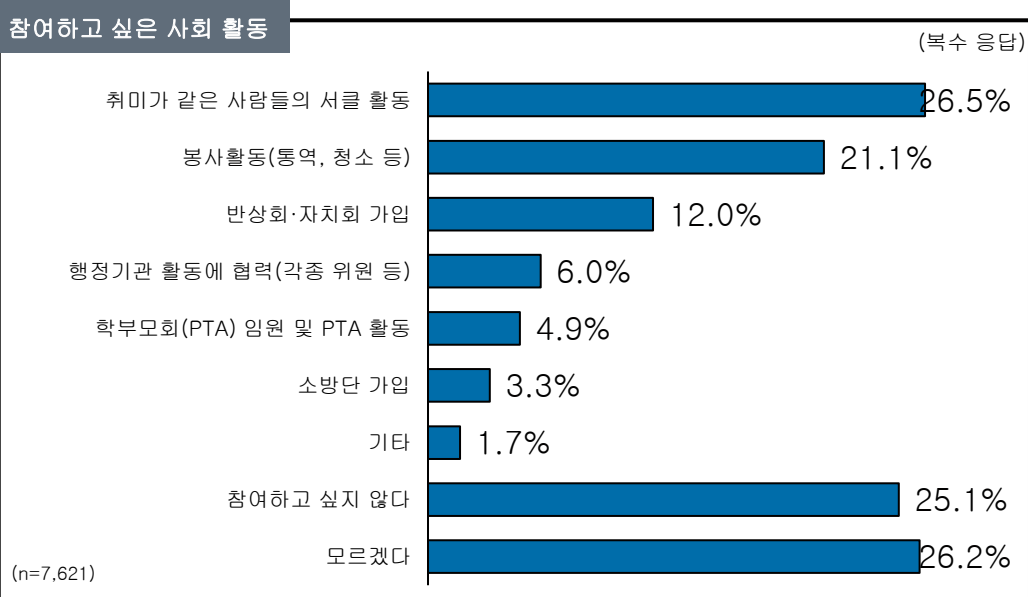
■ 일에 대해 곤란한 점은 '급료가 낮다'(33.3%), '휴가를 받기 어렵다'(8.1%), '근무 시간이 길다'(7.7%) 순으로 많다. '급료가 낮다'는 조사를 시작한 2020년도부터 꾸준히 가장 많다.

■ 사망 시의 절차에 관한 정보 입수처에 대해서는 '입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38.3%)가 가장 많다. 입수처로는 '가족·친족·친구·지인'(22.0%)이 가장 많다.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⑧(사회 참여 등)-

- 참여하고 싶은 사회 활동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서클 활동'이 최다(26.5%), '봉사활동(통역, 청소 등)'(21.1%), '반상회·자치회 가입'(12.0%)이 그 뒤를 잇는다.
- 향후 일본 체류 희망별로 보면, 일본 체류 기간이 길면 봉사활동이나 자치회 등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사회 참여에 대해 곤란한 점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25.0%)가 가장 많다.



참여하고 싶은 사회 활동(향후 일본 체류 희망별)

향후 일본 체류 희망	반상회·자치회 가입	소방단 가입	학부모회(PTA) 임원 및 PTA 활동	봉사활동(통역, 청소 등)	행정기관 활동에 협력(각종 위원 등)	참여하고 싶지 않다
계속 일본에서 지내고 싶다	14.6%	4.0%	5.8%	23.5%	7.2%	22.0%
10년 정도는 일본에서 지내고 싶다	7.1%	3.7%	3.3%	22.3%	5.3%	25.7%
5년 정도는 일본에서 지내고 싶다	6.3%	1.5%	2.0%	18.1%	3.6%	26.4%
1년 정도 지내고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일본 이외의 국가에 가고 싶다	8.2%	1.6%	1.1%	19.6%	3.8%	35.3%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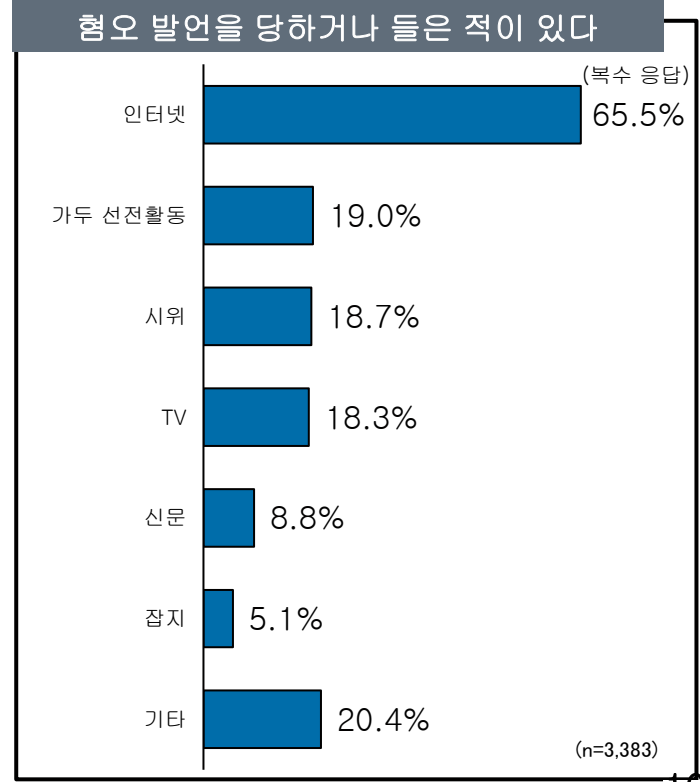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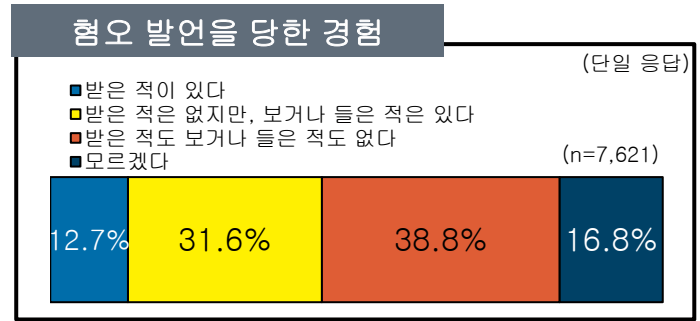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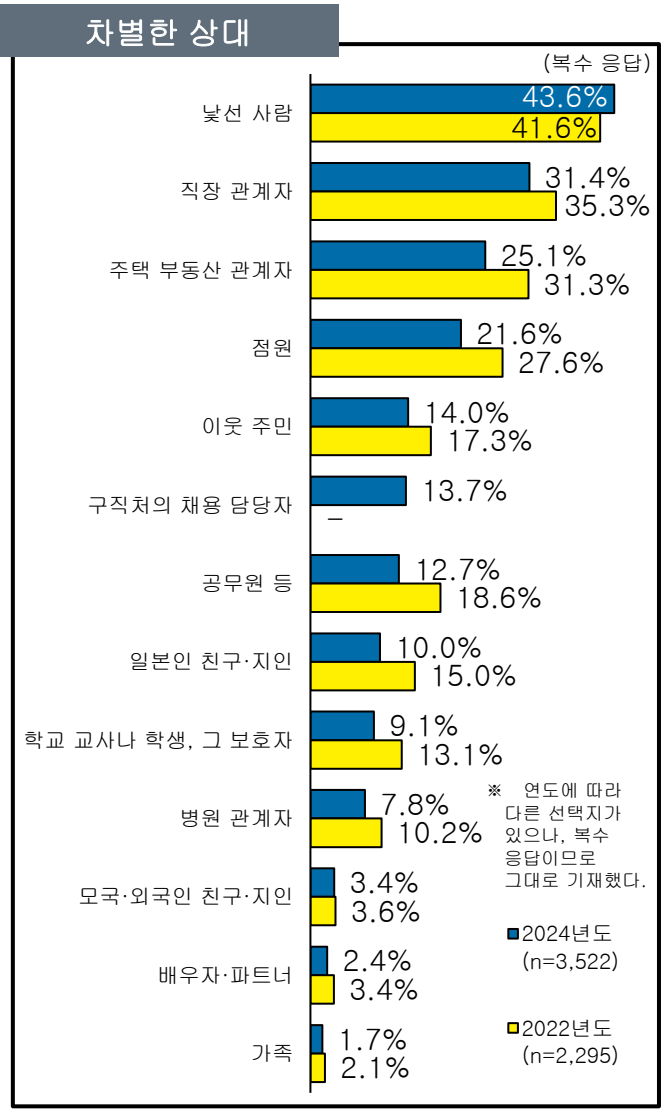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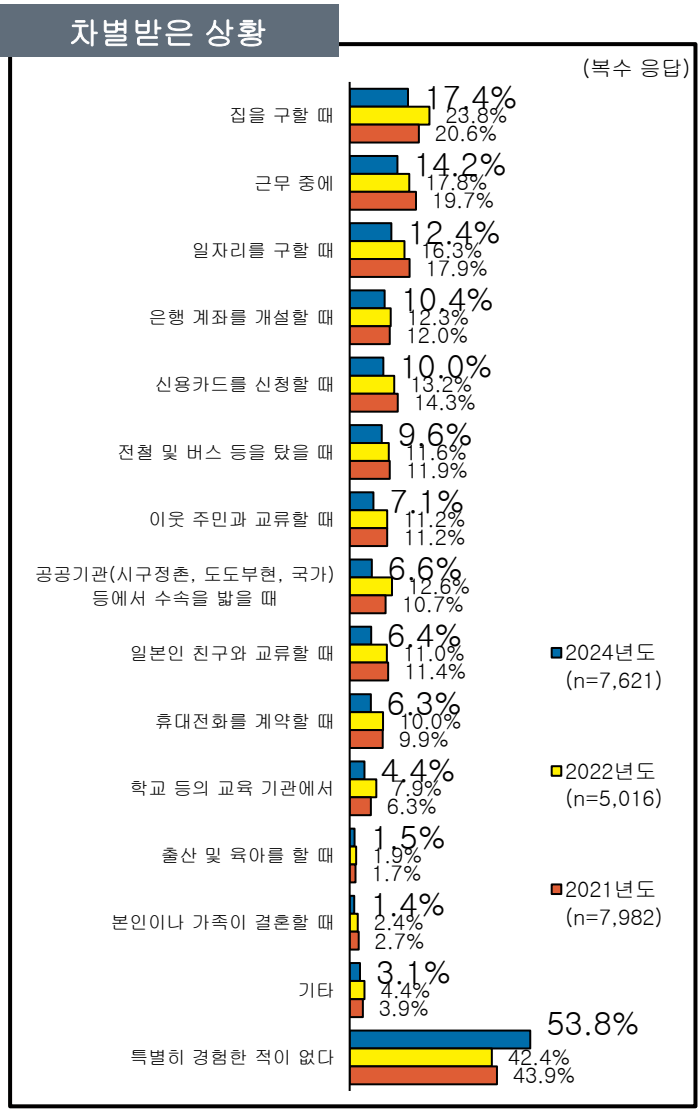
공생 사회 실현을 향한 의식 조성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활동 (상위 5 항목)(n=7,621) ※괄호 안은 2022년도 조사의 수치

순위	활동 내용	비율 (%)
1위	각국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음식 문화 등)	45.6% (44.7%)
2위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32.8% (37.0%)
3위	인권 존중에 관한 의식을 계발하는 행사	28.6% (28.1%)
4위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행사	26.7% (31.8%)
5위	누구나 알기 쉬운 일본어 강좌	25.2% (25.3%)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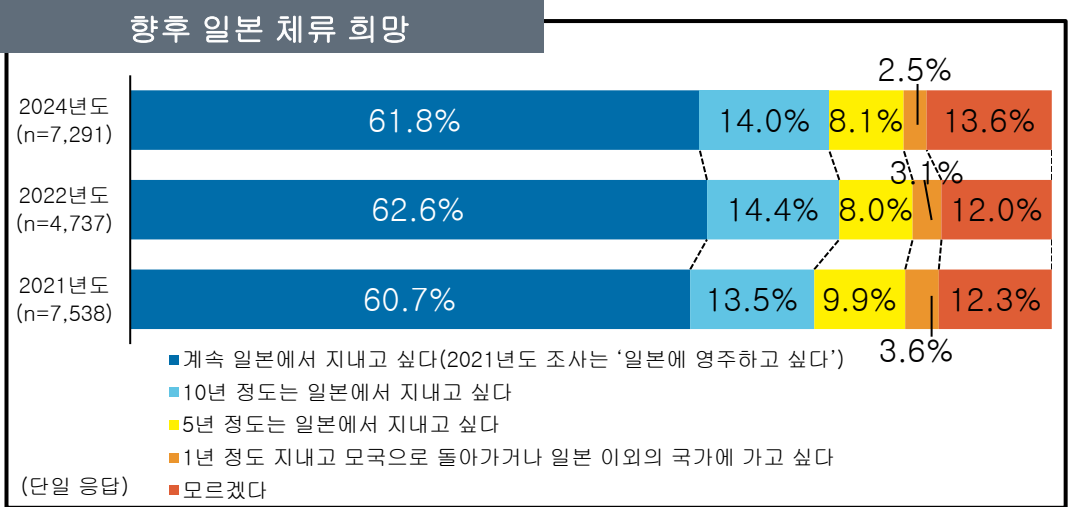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⑨(인권 문제·차별)-

- 차별을 받은 상황은 2021년도부터 상위 세 항목은 변함없이 ‘집을 구할 때’(17.4%), ‘근무 중에’(14.2%), ‘일자리를 구할 때’(12.4%)가 많다.
- 차별한 상대는 2022년도부터 상위 세 항목은 변함없이 ‘낯선 사람’(43.6%), ‘직장 관계자’(31.4%), ‘주택 부동산 관계자’(25.1%)가 많다.
- 혐오 발언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7%. 당한 적은 없지만,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1.6%.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장소는 ‘인터넷’(65.5%), ‘가두 선전활동’(19.0%), ‘시위’(18.7%) 순으로 많다.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⑩(사회보험·고독·향후 예정)-

■ 개호보험 제도에 대해 곤란한 점은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제도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36.6%)가 가장 많다.
 ■ 고독하다고 느끼는 일이 ‘때때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7%로 2023년 조사보다 2.0포인트 증가. 한편, ‘종종·항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3%로 2023년도 조사보다 0.6포인트 감소. ‘종종·항상 있다’, ‘때때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3년도 사람과의 교류에 관한 기초조사」(내각 관방)(조사 대상: 전국의 만 16세 이상의 개인: 2만 명)과 비교하면 두 항목 모두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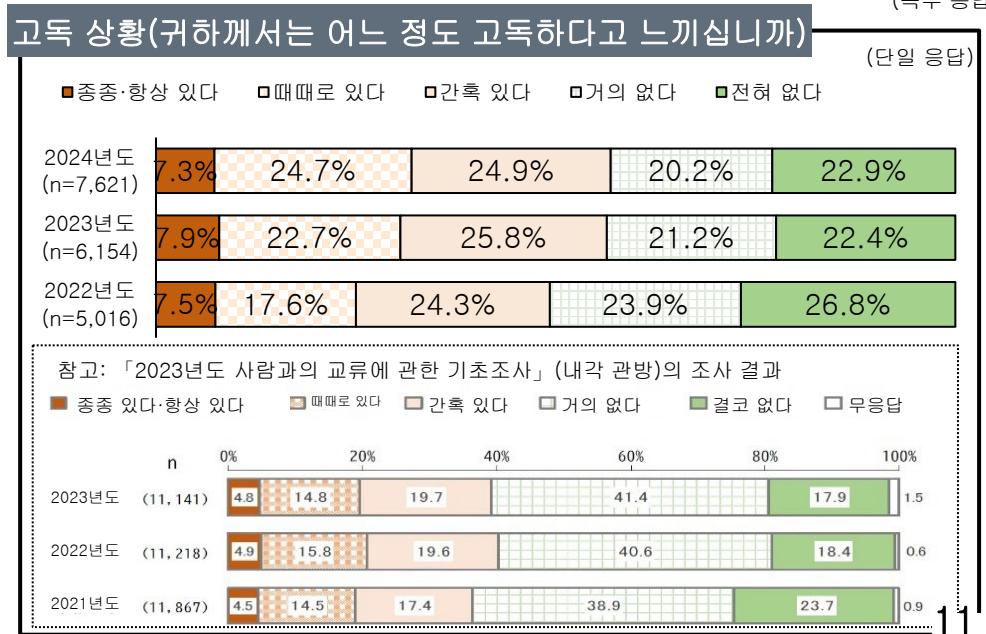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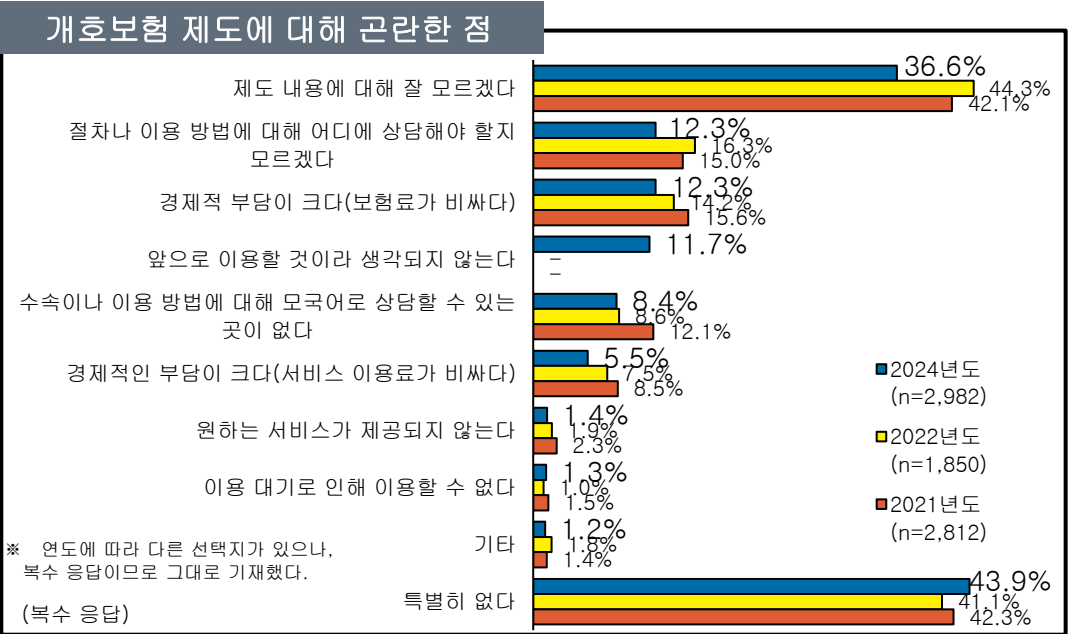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 입수처(상위 5 항목)(n=7,544)

※괄호 안은 2022년도 조사의 수치

순위	항목	비율
1위	직장	25.2% (26.1%)
2위	일본연금기구 연금사무소에서 보내주는 편지·문서	23.4% (25.2%)
3위	가족 및 친족	17.9% (21.1%)
4위	같은 국적·지역 출신의 친구 및 지인	17.0% (15.3%)
5위	일본인 친구·지인	16.9% (17.6%)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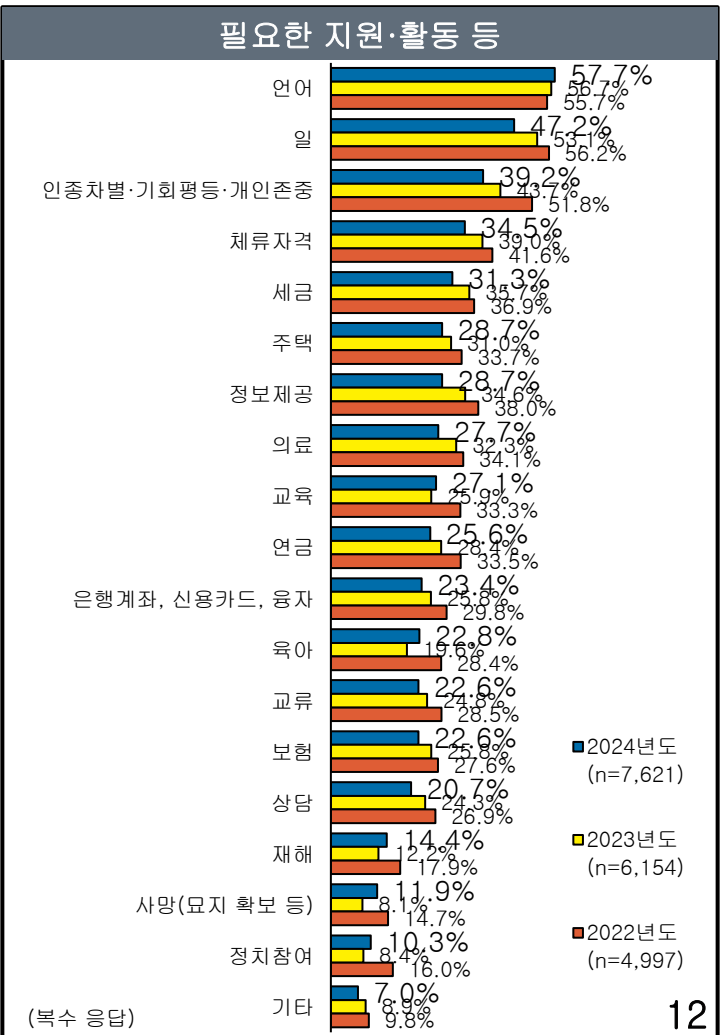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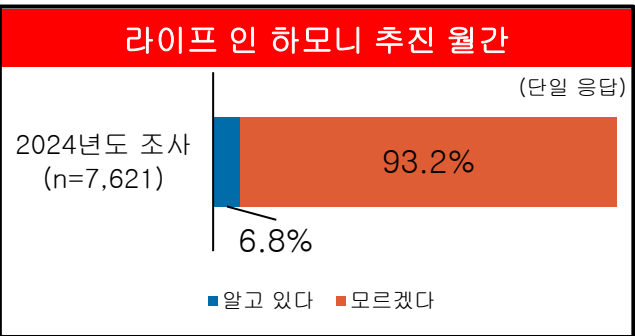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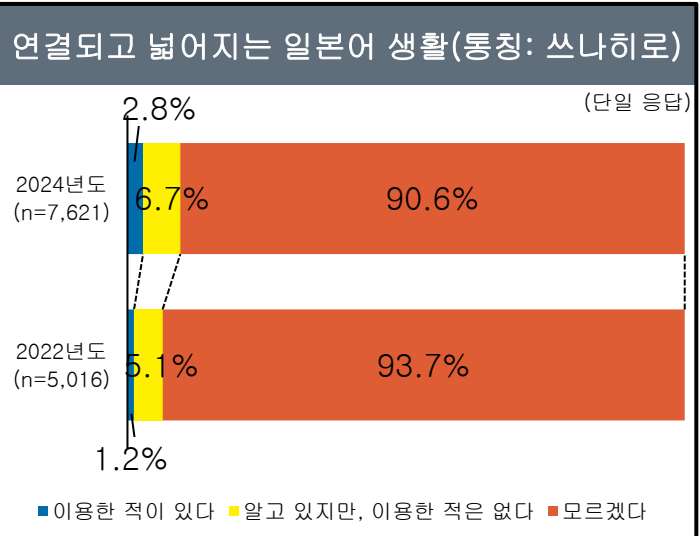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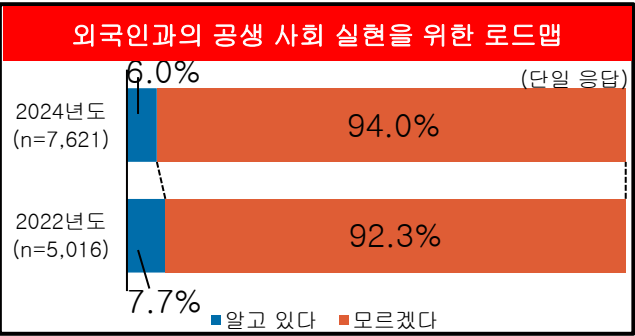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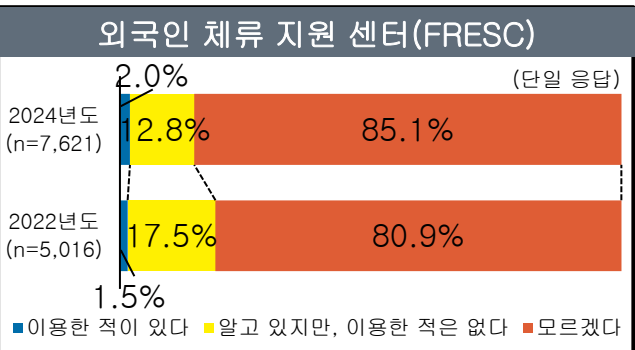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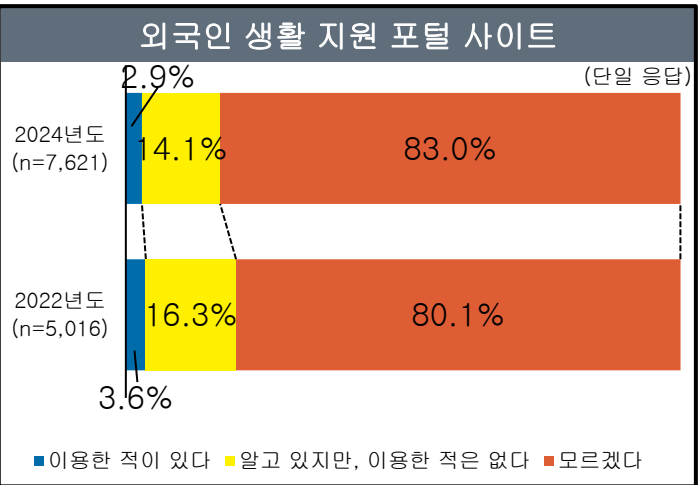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주요 결과 ⑪(웹사이트·활동 등의 인지도, 의견·요망)-

■ 외국인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및 활동 등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가 넘는다.

-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index.html>
- 연결되고 넓어지는 일본어 생활(통칭: 쓰나히로) ⇒ <https://tsunagaruip.mext.go.jp/>
- 외국인 체류 지원 센터(FRESC) ⇒ <https://www.moj.go.jp/isa/support/fresc/fresc01.html>
- 라이프 인 하모니 추진 월간 ⇒ https://www.moj.go.jp/isa/support/coexistence/04_00066.html
-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 ⇒ https://www.moj.go.jp/isa/support/coexistence/04_00033.html

■ 필요한 지원 및 활동 등은 2022년도부터 상위 세 항목은 변함없이 ‘언어’(57.7%), ‘일’(47.2%), ‘인종차별·기회평등·개인존중’(39.2%)이 많다.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의견·요망 등·외국인 ①언어·인종차별 등-

■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나 시책,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 ‘언어’, ‘일’, ‘정보 제공’ 등의 선택지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복수 선택 가능) 자유 서술 형식으로 답변하는 설문을 마련했다. 분야별 의견·요망은 다음과 같다(아래 각 분야 옆의 건수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수이다. 자유 서술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없음’, ‘잘 부탁드립니다’ 등을 제외한 6,198건에서 발췌했다. 명백한 오탈자나 개인 등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했으며, 일부 발췌한 경우도 있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답변이 있었던 경우는 일본어로 번역했다).

※ 게재된 의견은 응답자의 의견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으로서 게재한 것이며, 반드시 모든 의견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언어에 대하여(4,401건)

- 일본어 학습 지원에 대하여
 - 일본어를 배우는 강좌 등을 개최하여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도 폭넓게 하는 등 일정을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일과 가정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면 고맙겠다. 일본어 능력 시험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40대 · 여성)
 - 일본어 교실을 늘리고 홍보에 힘써 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구청에 가서 문의하는 수밖에 없고, 집 근처에는 없다. 정보를 얻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30대 · 여성)
 -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의 장벽과,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모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학 지원을 제공하고 일상 습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외국인이 자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도 연결되므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0대 · 남성)
- 외국어 지원에 대하여
 - 시청·구청 같은 곳에 외국어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면 외국인에게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는 일본어를 못하셔서, 내가 종종 동행하여 구청에서 수속을 봐야야 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언어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10대 · 남성)
- 알기 쉬운 일본어 등에 대하여
 -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를 습득하는 것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라고는 생각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모든 정보 출처나 서류 절차, 설명서가 그다지 쉽지 않은 일본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 번역되어 있더라도 영어 번역만 있는 곳도 많다. 쓰여 있는 한자를 히라가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써주기를 바란다. (20대 · 여성)
 - 알기 쉬운 정보 제공에 과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알기 쉬운 일본어나 외국어 정보 발신의 보급도 물론이지만, 지역이나 행정기관에 따라서는 외국인 응대에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등에서 영어는커녕 일본어로도 제대로 대화하려 하지 않고, "일본어 할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책으로서 알기 쉬운 일본어 강좌와 외국인 응대 연수(특히 소통 방법)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대 · 남성)

등

인종차별·기회평등·개인존중에 대하여(2,987건)

-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 자신의 성격이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나 자신이 그렇다), 어릴 때부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차별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10대 · 여성)
- 해외에서 일본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규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에 엄격한 일본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을 많이 보고 "외국인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외국인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외국인이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어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어디를 가든 규칙을 잘 지켜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개인적인 주변 경험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30대 · 여성)
- 이해하기 쉽게 ‘일본의 매너/규칙’, ‘일본과 모국의 암묵적인 규칙의 차이 & 그 대처법’에 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규칙을 모르거나/모국과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 생기는 일본인의 오해로 인해 외국인이 ‘차별받는다/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례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대 · 여성)
-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 친구들에게 외국인이라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 후,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외국인은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장점이 있어 장애에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야 비로소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 같다. (50대 · 여성)
- 일본인은 친절하고 잘 도와주며, 우호적인 직원이 많다. 하지만 일본 국민 대부분은 외국인과 이야기하거나 외국인이 근처에 있으면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 특히 전철을 탔을 때 그렇다. 그럴 때면 내가 이상한 존재로 비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0대 · 여성)
- 전국 TV 방송으로 전파되는 외국인에 관한 고정관념이 줄어들면 좋겠다. (30대 · 여성)

등

일에 대하여(3,594건)

- 취업 시 어려움 등에 대하여
 - 일본어를 4년간 공부하고 와서 그다지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고, 일본의 매너를 따랐기 때문에 차별받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취업 활동을 할 때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면접 기회조차 없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30대 · 남성)
 - 아내가 무슬림이라 히잡을 쓰고 있는데, 좀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공부 중이지만, 아내는 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로젝트 관리(토목 관계)를 전공했으며, 장래에도 일본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데, 취업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20대 · 남성)
 - 취업 알선 서비스: 당사자의 자격이나 어학 능력을 고려하여 외국인을 취업 기회와 연결하는 플랫폼을 창설한다. 직장 통합 프로그램: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문화 연수나 멘토 제도 등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창업 지원: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30대 · 남성)
 - 일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 일을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나이에 이르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많은 공장에서는 50세 이상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차별보다 더 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저와 같은 브라질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50대 · 남성)
- 취업 후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 외국인이 일하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곤란하게 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규칙이나 벌칙에 대해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억제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0대 · 남성)
 - 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나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4년간 일본에 살고 있고, 최근 20년은 일본 대기업에 근무하며 언어에 어려움은 없지만, 각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 것은 시간과 수고가 드므로, 각 법인의 총무나 인사 부문 등과 연계하여 직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일에 있어서 실적이 최고 평가를 받아도 승진·승급이나 연수 제도 등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해지므로, 일본 기업이 공표하는 정보나 제도 등 표면적인 요소가 아니라 각 회사의 풍토 등 사내 실태를 확실히 파악한 후, 평등한 대우를 의식하여 보장하도록 각 기업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체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회사의 각 제도를 모든 사원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기회가 정말로 평등한지, 직장에서는 평가받고 존경받고 있어도 회사의 현재 노동자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경력을 형성할 인재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아직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40대 · 남성)

등

정보 제공에 대하여(2,185건)

- 정보 내용 등에 대하여
 - 처음 일본에 온 외국인에게 일본의 관습이나 문화, 법령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이나 규제를 때때로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 서비스나 시설을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0대 · 남성)
 -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느끼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본에서의 생활에 관해 일상생활의 상황(전철, 버스, 은행 등 이용 방법)에서부터 제도 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집중 강좌가 실시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매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혹은 학생으로서 받게 되어 있는 감액(건강보험 또는 연금에 관한 것 등)에 관한 어떤 새로운 서류나 청구서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1주일짜리 온라인 강좌나, 1년 동안 고려해야 할 요점만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대 · 여성)
 - 향후 이용할 예정이라, 양로원이나 데이서비스에서 말이 통하는 곳의 정보가 있었으면 한다. (80대 · 여성)
- 정보 발신 방식 등에 대하여
 - 가능하다면, 외국인이 필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생활이나 서류, 수속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웹사이트(검색 사이트 같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 남성)
 - 모든 정보에 한자 위에 가타카나나 히라가나(후리가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는 외우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도 한자 읽는 법을 배우고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의 소통이나 설명에 관한 어려움이 대폭 줄어들고,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후리가나를 추가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부담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 남성)
 - 많은 외국인은 회람판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희 집은 무시당했고, 실제로 저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직장에서 지역이나 동네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 여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경로, 수단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이용하는 SNS를 선택하여,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협력하여, 일본인과 외국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동영상 제작하는 것 등도 국제 교류에 유용합니다. 더불어, 외국인의 일본 생활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대 · 여성)

등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의견·요망 등·외국인 ③체류자격·교육·주택·교류-

체류자격에 대하여(2,629건)

-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은 유효 기간이 짧아서, 이직하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맞는지, 또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손조롭게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의 종류도 많고, 각각의 규칙도 있어서 일에 제약이 됩니다. (30대 · 여성)
-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좋은 시민으로서 일하는 외국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취득을 더 쉽게 하거나,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외국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30대 · 남성)
- 영주권자로 한정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교육도 영주권자나 일본인 배우자, 일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0대 · 여성)
-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비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만둔 후 다음 일자리를 찾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에서 관련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다. (20대 · 여성)

등

교육에 대하여(2,062건)

- 사회에 외국인과의 공생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외국인과의 공생에 대해 배울 기회를 마련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외국인과의 공생에 대해 배우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것, 평범한 것'이라는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 여성)
- 일본 학교에 대한 이해나 적응, 나아가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녀를 받아주는 학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 남성)
- 나는 보육 조수로 일하고 있다. 근무지의 아이들 중에는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있는데, 나라에 따라, 가정에 따라 교육이 달라 일본 교육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못한다. 아이가 일본의 교육, 학습 방식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일본 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40대 · 여성)
- 아이는 일본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저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학습 지도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곤란합니다. (40대 · 여성)
- 자녀의 진학에 대해, 제도나 필요한 절차 등의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40대 · 남성)
- 일본에서 육아 중인 엄마입니다. 어느 학원에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 등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교육 방법에 대해 조언이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대 · 여성)

등

주택에 대하여(2,191건)

- 부동산 업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각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연 수입, 재직 기간 등 부동산을 빌리거나 구입할 때 물어봐야 할 것을 묻기 전에,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번 겪었던 경험입니다. (30대 · 남성)
-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의 보증인 문제나, 임대 매물의 선택지가 한정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부동산 업계와 연계한 외국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언어, 고용, 주거, 의료와 같은 생활 기반이 되는 분야에서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외국인이 일본에서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 · 남성)

등

교류에 대하여(1,720건)

- 일본인과 외국인의 교류에 대하여
 - 일본 정부가 축제나 이벤트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인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0대 · 남성)
 -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교류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일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주는 것은 서로의 유대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 남성)
 - 일본의 젊은이들은 매우 마음이 넓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외국인과의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서로의 성향을 더 배우고 다른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느낀다. (20대 · 여성)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에게 널리 일본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안내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 수밖에 없지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무섭다고 느끼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작은 소통의 여극남이 오해를 낳고 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100% 구사할 수 있고 친구도 대부분 일본인이지만,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를 거절당한 적도 있고, 임대 주택을 찾을 때 외국인에게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도, 거절한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오해의 표출이 우연히 저를 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기본으로 하고, 받아들인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처럼 일본에 오래 산 외국 국적의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대 · 남성)
- 같은 나라 사람들 간의 교류에 대하여
 - 같은 국적이나 모국어를 구사하는 분들과 가까워서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 여성)

등

상담에 대하여(1,579건)

-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40대 · 여성)
-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때 안내해 주시는 연락 담당자나 지도원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1대1이 아니어도 되는데, (모국어로) 궁금한 점에 부담 없이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스트레스/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인 제 아들은 4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입학 수속을 잘 모릅니다.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나요? 구청에 가서 아들을 등록해야 하나요? 현시점에서는 잘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고 있고, 며칠 내로 답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대 · 여성)
-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야기하거나, 묻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기관에 쉽게 가지 못하고, 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친구에게 상담하거나 일본인 배우자에게 물어 항상 동석해 달라고 부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60대 · 여성)
- 우리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거의 세금이나 연금, 보험 등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도 어려운 것들뿐이라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곤란하면 여기에 상담하세요"라고 한 곳을 소개할 수 있도록, 문제에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상담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살고 있으니 일본의 문화나 규칙, 법률을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30대 · 여성)
- 외국인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많이 제공하고, 외국인에게 상담 창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어려울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30대 · 남성)
- 시청에 외국인도 각자의 언어로 방문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여,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40대 · 여성)
- 부모님이 처음 일본에 오셨을 때, 일본어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 많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도 몰랐다. 결과적으로 연금에 거의 가입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기 때문에, 처음에 일하는 것에 관한 상식적인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하기 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로 일본의 노동 제도에 대한 정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막 일본에 온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30대 · 여성)

등

의료에 대하여(2,108건)

- 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가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의사에게 진찰받지도 못하거나, 의사의 의견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같은 간단한 증상이라면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통역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역 비용이 의료비나 약값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로도 어떻게든 됩니다. 제 경우,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진료에 관해서는 의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겪고 있는 일이지만,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통역 서비스가 비싸서 항상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이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전화 통역 서비스라도 괜찮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의료기관 진료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0대 · 여성)
-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진료 시에는 일부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다. (20대 · 여성)
- 병원 등에서 종이에 쓰는 절차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40대 · 여성)

등

세금에 대하여(2,383건)

- 확정 신고 관련 서비스의 영어 버전이 필요하다. 많은 외국인이 매년, 전혀 지원 없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도움이 될, 이 강좌 또는 무료 강좌를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30대 · 남성)
-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기 편하게 하려면 언어 관련 서비스, 상담,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외국인 대부분이 세금 제도와 그 영향에 대해 모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자체뿐만 아니라, 세금의 의미나 세금을 정식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0대 · 여성)
- 내 이름은 일본 컴퓨터 시스템에는 너무 길다. 세무서에서는 내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다. 매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세무서에서 고생한다. 세무서 컴퓨터에 긴 이름도 입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0대 · 남성)
- 주로, 외국인이 일본어를 학습할 기회를 갖기 위한 언어 지원. 세무 지원의 경우, 내 생각에 대부분의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의 내용과 납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 생각에 일본 정부는 여기 일본에서의 세금에 관한 외국인의 궁금증에 답하기 위한, 주로 외국인을 위한 사무소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대 · 남성)

등

연금에 대하여(1,954건)

- 체류자격이나 세금, 연금에 대한 안내와 지원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면 아마 부모님이 세금이나 연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알려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바뀌는 시기에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 여성)
- 계속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장래에 필요하게 될 외국인의 노후 생활 관련 제도나 구조에 대해 알고 싶다. (30대 · 여성)
- 오랫동안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국에 계신 부모님 돌봄 및 자신의 돌봄(장래)을 어떻게 할지 등의 인생 설계 정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른 단계에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0대 · 남성)
- 연금 신청과 수급 방법에 대해 정부가 간결하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연금 지급액의 상세한 계산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50대 · 여성)

등

정치참여에 대하여(785건)

- 외국에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높으니, 선거권이 있으면 좋겠다. (40대 · 남성)
- 참정권은 필요 없지만, 일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하기 쉬워지면 좋겠다. (40대 · 남성)

등

보험에 대하여(1,724건)

- 일본의 세금, 연금, 보험 제도 등이 외국어 표시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석·설명되었으면 합니다. (40대 · 여성)
- 재일 외국인에게 세금이나 보험 납부 방법, 확정 신고 방법을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20년은 일본어나 일본 생활을 이해하고 습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50대 · 여성)
- 입국 후부터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설명을 필수로 실시하면 일본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 · 여성)

등

은행계좌, 신용카드, 대출에 대하여(1,780건)

- 나는 영주 비자가 없을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한 은행만이 대출을 해주었지만,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보다 높은 이율이 전제 조건이었다. 아이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래도 집을 샀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영주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대출 이율 문제에도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인과 같은 이율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40대 · 남성)
- 저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 아내는 무직일 때도 쉽게 발급받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요? 계속 이 일이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30대 · 남성)
- 신용카드가 없어서 모바일 계약(전화번호)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으며, 계좌 없이 신용카드 심사는 매우 통과하기 어렵다는 악순환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 처음 일본에 오는 사람이나 아직 거주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매우 곤란합니다. 적절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만, 적어도 공적 용자(특히 유초 은행의 신용카드 등)의 심사 완화와 위와 같거나 비슷한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대 · 남성)
-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가 많고, 재류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은행에 동결 해제를 하러 가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20대 · 여성)

등

재해에 대하여(1,098건)

- 재해나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50대 · 여성)
-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 차원에서의 외국어 정보 발신이 필요하다. (30대 · 남성)
- 나는 재해 상황에서 일본어보다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영어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특히, 내 휴대전화에 탑재된 자동 사전 지진 경보는 먼저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 경보가 먼저 나오도록 어딘가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불과 몇 초밖에 반응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30대 · 남성)
- 지진이 일어났을 때,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 곤란합니다. (40대 · 여성)
- 내가 사는 동네에서 큰 재해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이곳에 나보다 오래 산 직장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30대 · 남성)

등

202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기초조사 -의견·요망 등·외국인 ④육아·사망·기타-

육아에 대하여(1,735건)

- 정보 제공에 대하여
 - 육아에 관한 실용적인 일본어 교재도 필요합니다. 육아에 필요한 적절한 일본어를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SNS 그룹 계정이 필요합니다. (30대 · 여성)
 - 아이의 발달 문제(언어 지연, 자폐증, 각종 선천성 질환)에 대해, 외국인에게 의료 관련 정보나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관련된 많은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40대 · 여성)
- 육아 관련 어려움에 대하여
 - 아이가 일본어 공부는 물론이지만, 모국어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50대 · 여성)
 - 학교에서 부모들 간의 교류의 장 등도 중요하다. (80대 · 남성)
 - 보육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육아를 하면, 아이는 일본어나 일본의 예절, 문화를 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곤란을 겪을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부모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3세 미만의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30대 · 남성)
 - 아이가 어리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일본어 환경이 없으면, 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부담이 커진다. 어릴 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한다. (40대 · 남성)
 - 유아 교육 시설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30대 · 남성)

등

사망(요지 확보 등)에 대하여(904건)

-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고, 절차가 많다. 슬픔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다. (30대 · 남성)
- 시신을 모국으로 운구하는 비용이 고액이다. (20대 · 남성)
-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활을 매우 즐겼고, 일본인들은 대체로 저에게 매우 친절했지만, 작년에 일본 국민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사망, 연금 등에 관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본에 영주할 계획이지만,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진실되고 최신 정보 등에 접근하는 방법, 제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될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고, 일본어 읽기/쓰기가 필요한 서류 작업 등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저를 많이 도와주지만, 일본에서 과부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일본에 있는 제 가족과 친구들은 매우 친절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 있는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링크에 기재) 대부분은 저에게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던 정보이므로, 이러한 유용한 웹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더 적절히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한 영어 정보 목록을 모든 외국인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작위 인터넷 검색으로 찾게 되는, 경우에 따라 잘못되었거나 낡은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체로, 저는 행정 절차, 세금, 연금,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제 모국보다 어렵다고 느끼며, 이는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이곳의 제도가 매우 번잡한 것도 원인입니다. 분명 여러 도시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시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적절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시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50대 · 여성) 등

기타(532건)

- 고독·고립, 정신 건강에 대하여
 -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고독감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자나 상담사의 지원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20대 · 여성)
 - 나는 최근 정령지정도시의 한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이전보다 대도시라서 더욱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다. 축제 등 문화 행사나 다양한 그룹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전에 살던 지역보다 그룹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이전에는 더 작은 마을에 살아서 직장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축제 무대를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참여와 관련해 물어볼 수 있었다. 그런 행운을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다. (30대 · 남성)
- 귀화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가지고 30년 이상 일본에서 살고 있으며, 일본어는 능력시험 1급을 취득했습니다. 이제는 모국보다 일본에서 산 기간이 더 길지만, 귀화 수속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조금 더 간단하게(국내 활동 실적에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50대 · 남성)
- 기타 생활상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 일본에서 범죄 행위를 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에 사는 같은 외국인에게도 폐가 됩니다. 외국인이 일본 문화를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50대 · 여성)
 - 현재 엔화가 매우 저렴한 것과 물가 및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 특히 외국인의 생활을 최적의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일본에 붙잡아 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 여성)

등 18